

2022 OPEN! 19.

피폐함의 시대! 이유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산다.

[스가랴 3:3-5] 3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1. 피폐함

오랜 가뭄으로 땅이 황무지가 되고 있다. 흙이 부서진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성경은 인간을 땅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을 비교한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은 절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폐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피폐하다'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 '지치고 쇠약하여 지다.'라는 뜻이다. 땅도 오래 쓰면 영양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땅도 쉬어야 한다. 땅이 지친 것이다. 그래서 쇠약해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사회는 '지침과 피곤의 시대'이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몸이 그 해답을 안다. 몸이 말한다. 내 상태의 빨간불을 점검하라. 이미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2. 해결을 찾다.

사람들은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결을 찾는다. 해결을 찾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이다. '원인' = 방치
 피폐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다. 방치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불황의 시간과 피폐함은 비례한다. 불황이 장기화가 되면 피폐한 상태의 사람들이 증가한다) **너무 오랫동안 쭈그려 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모든 근육이 다빠진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사도행전 3:2-3] **2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피폐함의 상태이다. 구걸한다 가 이 사람의 피폐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1) 혼과 육의 해결

사람들은 해결을 찾는다. 해결은 '쉼'이다. 이미 피폐해진 토양은 양분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이 살기 위해서는 땅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한다. 쉼을 갈망한다. 정신적 쉼을 주기 위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는다. (여행, 공연, 관람, 독서 등) 육신적 지침에 쉼을 주고자 한다. (음식, 운동, 여행 등) 좋은 해결이다. 그런데 이 해결은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

혼과 육의 해결은 잠시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것 역시 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혼과 육이 라는 땅에 다른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지친 토양을 쉬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위에 또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도 공연도 내 노력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7]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고린도전서 15:45]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5, 새번역]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NIV]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사람은 땅의 흙이었다. (7절)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존재) 고린도전서 15:45에 사람은 생령의 존재라 말한다. 생령의 존재란 살아있는 존재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산 영) 살아있는 존재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혼과 육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말씀을 보자.

[창세기 3:19] 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땀을 흘리는 수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상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의 목적은 분명하다. 노동 없는 수고 없는 편한 삶을 보상으로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평안은 혼과 육의 평안이다.

그래서 그 평안을 보상으로 얻은 것 같았는데 존재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다 소유해보고, 다 즐겨 보았고, 다 먹어 보았는데 허무하다는 것이다) 전도서의 허무함은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그냥 내 인생 허무하다 라는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라 '아 내가 영적인 존재 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 행복 할 수 없는 존재 이구나'를 깨닫는 역설적 기쁨의 고백이다.

(3) 살리는 영 예수가 주는 안식



고전 15: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을 말한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 이시다. 예수님 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침과 피곤함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마11:28의 말씀이 구원의 보상이다. 혼과 육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영원한 지침과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단순하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문제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을 얻었다. 그 문제 해결은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 - 가치 있는 땅, 옥토 밭으로 변화된 것이다.'

3.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침의 다른 원인 - 사탄의 영적 공격'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보면 피폐해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준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려하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로 본 환상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첫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선 것이다.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의 옷을 보며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가랴 3:1] 1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3 그 때에 여호수아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었던 죄의 옷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 (냄새 나는 더러운 옷)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말해준다. 제사장의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해준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홀리스에게나 나타나는 상황이다.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갈아 입어야 하는데 갈아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음을 말한다.

'마음의 옷은 혼과 육의 옷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새 옷을 입을 수 없다. 혼과 육의 옷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대상이 된다. 마음의 옷은 혼과 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는 존재이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

지침과 피곤함의 원인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공격하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한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가지 다른 소리와 철학과 메세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4. 이유없다. 하나님 앞에 서라. '안식'으로 회복.

여호수아를 향한 일방적인 회복이 있다. 이유없다. 그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스가랴 3:4-5] 4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 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5 그 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 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있을 뿐이다. 서있기만 했는데 천사가 와서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를 없게 한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머리에 권위의 상징인 관을 씌운다. 그 이유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다. 이 장면은 피폐해진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토양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있는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다시 내 토양은 창조의 토양이 된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서 있었을 뿐이고 멈추었을 뿐이다.

5. 땅이 바뀌는 시간

지친 영혼, 피폐해진 영혼이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땅인가 생각해보라. 땅이 다시 개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열매가 없는 땅, 피폐해진 땅은 다시 개간되어야 한다.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농부 이시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지쳐있는 땅, 자양 분이 없는 땅) 현명한 농부는 땅을 개간하기 위해 농사를 멈춘다. 그리고 거름을 주어 땅을 부드럽게 한다. 거름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땅 속에 다시 미생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현명한 농부는 땅을 먼저 개간한다. 그리고 땅을 깊게 판다. 그 이유는 땅 깊은 곳의 토양의 '땅심'이 좋기 때문이다. 얇은 흙은 이미 식물이 양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 현명한 농부는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 살게 한다. 이제 땅이 바뀌어야 한다. 조이풀의 땅이 바뀌어야 한다. 내 자신과 공동체 한국교회의 토양이 바뀌어야 한다. 바로 그 곳에 오늘의 말씀처럼 '새싹(메시아)'가 나기 때문이다.

[스가랴 3:8] 8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생명력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이 땅은 축복이 땅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땅이 되는 것이다)

